

박달수의 함석헌 음해 위서

위서의 사회사 — 14

김삼웅 | 성균관대 언론정보대학원 겸임교수

박정희 군부는 정권연장을 위해 1963년 '민정이양'이라는 구실 아래 직접 민정참여에 나섰다. 이런 상황에서 언론과 지식인들은 침묵을 강요당하고 있었다. 이때 독재에 항거해왔던 함석헌옹이 나서서 언론지상에 비판의 필봉을 휘둘렀다. 군부에서는 박달수란 인물을 동원해 정부기관지에 함옹을 부정과 파괴의 반역자로 몰아붙이는 기사를 실었다. 40년 이 다 되는 지금까지도 박달수가 누군지 그 정체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

예나 이제나 가명으로 글을 쓰는 사람은 신사답지 못하다. 자신의 이름과 직함을 밝히지 않고 쓰는 글은 일단 위서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그것도 남을 모함하거나 비방하는 글을 가명으로 쓴다면 범죄행위라 할 수 있다. 남이 써주는 대필과는 성격이 다르다.

박정희의 민정참여에 붓으로 항거한 함석헌옹

박정희 군부는 1963년에 2년여 동안의 군정을 거쳐 참신한 민간인에게 정권을 이양하겠다고던 자신들의 공약까지 헌신짝 버리듯 하고 '민정이양'이라는 구실 아래 직접 민정참여에 나섰다. 연초부터 사전 창당한 민주공화당을 중심으로 선거를 서둘렀다. 4대 의혹사건 등으로 엄청난 정치자금을 조달하고, 구정치인과 군내 반대세력의 정치활동을 막기 위해 제정한 '정치 활동정화법'으로 4,374명의 정치활동을 봉쇄하고서였다.

박정희 군사정부는 오로지 정권연장을 목적으로 거대한 조직인 중앙정보부를 통해 온갖 비리와 인권탄압을 자행하는 등 국민의 원성을 사면서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하고자 무리수를 거듭하고 공포분위기 속에서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언론과 지식인들은 할 말을 하지 못하고 군인들의 눈치나 보고 있었다. 국회는 이미 해산되고 국가의 모든 비판기능은 마비된 지 오래였다.

5·16쿠데타가 발생할 때 가장 먼저, 가장 강력하게 저항했던 함석헌옹이 이번에도 앞장섰다. 박정희의 민정참여는 안된다는 주장이었다. 이때 함옹은 미국을 거쳐 유럽 여행중에 국내 소식을 전해 듣고 급거 귀국해 다시 포문을 열었다.

중앙 일간 신문에 7월 16일부터 <울음으로 부르짖는다>는 제목으로 7회에 걸쳐 <박정희님에게> <정치인들에게> <언론인들에게> <지식인들에게> <군인들에게> <교육자들에게> <학생들에게> 등 공개적으로 그야말로 '할 말'을 했다. 폭압통치 구조에서 언론이 막혔을 때 '할 말'을 하는 진짜 용기 있는 지식인이다. 함옹은 참 지식인의 모습을 보여줬다. 얼어붙은 사회에 비판의 칼날을 들이댄 것이다.

박정희 진영이 이런 함옹의 저항을 보고만 있을 리 없었다. 여전히 서릿발 치는 군정치하였다. 그러나 이번의 경우는 대처 방식이 달랐다. 폭력이나 물리적 대신 '붓에는 붓'의 방식이었다. 상대가 함옹이다 보니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필력이나 내용 면에서도 수준급 이상

함옹의 글이 전국민적인 관심사로 시정의 화제가 되고 있을 때, 정확히 그 해 7월 29일부터 <서울신문>에는 <'역시 울음' 속에 숨은 음험 함석헌씨의 '울음으로 부르짖는다'를 박함>이란 글이 연재됐다. 한자로 朴達樹(박달수)라는 이름으로 집필됐다. 40년이 다 되는 지금까지도 박달수가 누군지, 군정시대 대표적인 위서 집필자의 정체가 가려지지 않고 있다.

정부기관지에, 그것도 군정 최대의 정적이라 할 함옹의 글을 공개적으로 비방하는 인물이라면 언론계는 물론 정부측의 상당히 비중 있는 인물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필력이나 내용에 있어서도 수준급 이상이다. 그러나 당시 언론계나 학계·정부요로에는 이런 글을 쓸 만한 '박달수'는 실재하지 않았다.

누군가의 가명이거나 위작일 터였다. 굳이 성함을 풀이하자면 박달나무란 뜻인데,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기 어렵다. 연재 첫날의 내용부터 살펴보자.

"어느 길목 약간 높은 자리에 혼자 서서 떠들어대는 한 노인이 있다. 어깨를 버티고 핏대를 올려가며 혹은 위장자를 욕질하고, 혹은 여아의 정치인들을 도맷금으로 때리고 혹은 언론인·예술가·교육자 할 것 없이 이 나라 모든 지식인을 꾸짖고 외람하게도 신을 모독하고 종교를 비방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결국엔 군인과 학생들마저 고성질타 노발 혼계하고 있다.

그다지 슬프지도 않은 위패 앞에서 체면상 할 수 없이 억지울음을 곡하는 조상객처럼, 아니 보다 더 노련한 일류 배우처럼 이 노인은 번지레한 눈물을 줄줄 흘려 꾸며진 울음을 단장의 울음인 양 근사하게 들어가며 손짓발짓 갖은 기교로써 독살스럽고도 광범한 욕설로 좌충우돌하고 있다.”

얼마나 '유려한' 필체인가. 서두부터 함옹을 부정적으로 매도하는 필력이 보통이 아니다.

“욕 잘하는 싸움꾼은 확실히 한때의 구경거리는 된다. 그저 모여들 따름이다. 탑골공원 싸구려 약장수의 허름한 요술이나 메마른 약광고를 보고 들듯, 민중이 그저 그의 욕설 장광설을 물끄러미 듣고 있다.

그렇다. 아무리 어릿광대가 악을 쓰고 입가에 거품을 튀기면서 좌충우돌 사면 팔방으로 욕지거리를 퍼붓는다 할지라도 그의 너무나 부정적이며 너무나 파괴적이며 너무나 독존적이며 너무나 악의적이며 너무나 저의적인 야비막심한 욕설들은 다만 그러한 욕설만에 그칠 따름이지, 이 허울 좋은 노인의 말 속에 무엇인가 그들, 대중에게 조금이라도 실질적인 건설적인 희망적인 복된 선물이나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고 있는 그들 대중에게는 단 1원짜리 국화빵 한개의 가치도 없는 것이다.”

독재에 항거하는 행위를 파괴로 몰아붙여

현정을 파괴하고 자신들만의 권력구조를 만들어 자존망대해온 야비한 군정세력이 이를 비판하는 함옹에게 적반하장격으로 파괴적이니, 독존적이니 하는 따위의 어휘를 사용해 공격한 것이다. 용어란 이렇듯 아무나 사용해도 제소리를 내는 무력한 도구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

“함씨가 모지(7월 16일부터 7회에 걸쳐)에 실은 <삼천만에게 울음으로 부르짖는다>는 파괴 선동의 욕설에서 그 저의 깊은 간지를 천하

“현정을 파괴하고 자신들만의 권력구조를 만들어 자존망대해온 야비한 군정세력이 이를 비판하는 함옹에게 적반하장격으로 파괴적이니, 독존적이니 하는 따위의 어휘를 사용해 공격한 것이다. 용어란 이렇듯 아무나 사용해도 제소리를 내는 무력한 도구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

에 자폭함으로써 감히 조상들의 아름다운 수훈을 배반하고 말았다.

듣건대 함씨는 그 일생을 큰 것에 대한 부정과 파괴의 반역아로 시종해왔다 한다. 일제시대 그가 일제라는 큰 것에 거부한 반역은 가히 칭찬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지만 해방 후 이날의 조국은 부정보다 긍정을, 파괴보다 건설을, 항거보다 협조를, 반역보다 이순을 절실히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아에 집착되어 자아승화를 이루지 못한 채 낡아빠진 시대착각으로 이러한 이날에 있어서까지 구태의연한 부정·파괴·항거·선동의 역론만을 일삼는다는 것은 그래서 설사 함씨 일신의 만용을 자랑하는 매명의 성과를 거두어 미국의 초빙을 받아 구미만유의 합씨적 권리만을 얻었는지 모르지만, 욕설로 얻어진 그의 1년 유반의 구미만유가 그동안 배고파 울고 있는 이 겨레 어느 누구에게 한끼의 보리밥인들 줄 수 있었으며 추위에 떨고 있는 이 겨레 어느 누구에게 단 한 켠레 버선인들 줄 수 있었던가?”

독재에 저항하는 것을 '큰 것에 대한 부정과 파괴의 반역아'로 몰아치면서 배고픈 겨레에게 보리밥 한끼라도 주었느냐는 공박이다. 다분히 굶주리는 백성들을 의식하는 선전 선동용어이다.

박달수의 실체 아직도 드러나지 않아

세번째 연재부터는 주로 박정희를 변호 또는 비호하는 데 많은 지면을 할애한다. 즉 “더욱이 함씨는 말하기를 '청천백일하에 혁명공약을 한 애국군인들로 하여금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꺾하여 딴 생각까지 나게 만든 것이 누구입니까? 두번 세번 국민 앞에서 한 성명을 뒤집게 한 것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라고 하여 혁명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한 것(능동적으로 지키지 않은 것이 아니라 피동적으로 할 수 없이 지키지 못하도록 한 것)이 재야정치인들의 소치라고 갈파함으로써 그 자신 전기한 전제와 결론과의 필연적인 인과율을 시인하고 있으면서도 박의장에게 '할 수 있는 전제의 성립 없이 하지 못하게 된 공약의 결론만을 성립시켜라'고 강요하는 무지막지한 논리의 모순·자가의 당착을 스스로 범하고 있다”고 매도했다.

박달수의 악담은 이어진다. “소아에 도취되어 대아의 사리를 판가름할 줄 모르는 이 20세기 후반기의 몽유병자는 그저 자기 이외의 모든 것을 때리고 부수는 부정 파괴의 변태적 기호 속에 아전인수의 명성을 더듬고만 있다.” “그야말로 함씨야말로 민중에 대한 반역이요, 국가에 대한 이적을 감행하는 죄과를 범하고 있는 현행범인 것이다. 민중의 이름으로 처단되어야 할 간첩 이상의 파괴악랄 분자인 것이다.” “<3천만에게 울음으로 부르짖는다>라는 억지울음의 노연극배우, 협조와 건설을 부르짖는 이 나라에서 분열과 파괴를 노리는 씨의 악랄한 매명선동, 안정과 긍정을 찾고 있는 이날 이 겨레에 불안과 부정을 던져주는 씨의 너무나 역리적인 소영웅관!” 등 저질 용어를 동원해 비난하면서 '간첩 이상의' 처단 대상이라고 악을 쓴다.

용기 있는 지식인을 이렇듯 악랄하게 비난한 박달수는 지금까지도 실체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 ■